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, 60여명과 사과 수확 봉사

이순호 기자 | 승인 2026.11.10 17:14

예천군 보문면서 60여명 참여 사과 수확 및 운반 지원 활동 진행



▲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 ⓒ국제아이저널

[국제i저널 = 이순호 기자]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는 10일 경북 예천군 보문면의 한 농가를 찾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대상으로 사과 수확을 지원하는 '농산어촌 행복충전활동'을 실시했다.

이번 활동은 지역 농가의 인력난 해소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.

행사에는 예천지사 직원을 비롯해 예천농협, 농협 예천군지부 등 총 60여 명이 참여해 사과 수확과 운반 작업을 함께하며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.

곽승채 예천지사장은 “이번 영농도우미 활동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”며, “앞으로도 농업인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”고 말했다.

한편,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는 지역 사회에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.

이순호 기자 iij@iij.co.kr

저작권자 © 국제i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